



넘쳐나는 아이돌 오디션 시청자는 불편하다



KBS '더 유닛'

한 번 데뷔한 아이돌 재기 기회 제공 칭찬 일색으로 착한 오디션 표방 연출 느슨·재미 부족...시청률 부진

착하기만 하면 지루하고, 독하기만 하면 불편하다. 최근 KBS 2TV와 JTBC가 아침 차게 준비한 '더 유닛'과 '믹스나인'을 동시에 내놓으며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시장에서 격돌했지만 지난 여름을 휩쓴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2의 아성을 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완전히 상반된 콘셉트로 시작한 두 프로그램은 초반부터 강점도 약점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 착한 건 좋지만 일관성은 갖춰야... '더 유닛'
한 번 데뷔한 아이돌을 '리부트'(reboot) 해주겠다는 착한 취지는 공감을 얻었지만, 어쨌든 오디션에는 일관된 심사기준과 짜릿한 연출이 필요하다.

비밀 비웃는 선배 군단의 참가자들을 향한 시선은 다른 오디션들에 비해 따뜻하다. 선배 한 명만 '부트 버튼'을 눌러줘도 합격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는 취지에 부합한다.

모든 오디션 프로가 선정적인 독설과 '악마의 편집'을 필수 재미 요소로 좇을 때 '더 유닛'은 '착한 오디션' 시장을 개척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에 가능했던 시도도 보인다.

참가자 중에는 한번 실패한 데다 아이돌로서는 나이의 장벽에도 가로막힌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기반으로 한 트레이닝이 어떤 성장 결과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평가 기준과 느슨한 연출은 좋은 취지와 별개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스피카 양지원, 빅스타 필독, 유키스 준, 핫샷 김디모테오 등 일부 참가자가 재조명됐지만 프로그램 취지를 생각하면 한참 부족한 숫자다. 나머지 자리와 분량을 신인들이 채워버린 탓이다.

'재수생'들의 눈물 나는 사연과 절박한 무대에 집중할 만하



면 '병아리'들이 나와 귀여움을 부각하니 시청자로서는 일관되게 몰입할 기회를 잃는 셈이다.

여기에 '올드'한 연출이 더해지며 '더 유닛'은 '프로듀스101'처럼 적극적인 시청자 투표표를 양산하지 못하고 있다. 시청률(닐슨코리아)은 금방 4%대로 떨어졌고 CJ E&M·닐슨코리아 콘텐츠영향력지수 순위도 한 주 만에 1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최종선발자들에게 2년 이상의 매니저먼트 계약 기간을 못박은 것도 논란이 됐다.

'더 유닛' 관계자는 18일 "프로그램 취지가 '재기'가 아니라 활동기간에 상관없이 한 번 데뷔한 사람에게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초반 좀 혼선이 있었다"며 "조별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몰입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재밌지만 '갑질'에도 웃어줄 수는... '믹스나인'
철저히 성과 지향적인 '믹스나인'은 긴장하며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프로그램 내 '절대권력'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전국 기획사의 수많은 연습생 중 버스에 태우는 사람은 극히

JTBC '믹스나인'

실력 위주·강한 일침...보는 재미 유도 타 기획사 돌며 연습생 평가...긴장 더해 양현석 '갑질' 막말에 시청자 불편 느껴

일부다. 실력이 부족한 연습생은 버스에 못 타는 것도 서러 운데 독설까지 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온갖 패자부활전을 챙겨주지는 않듯 어린 친구가 눈물을 흘려도 양 대표의 독설은 멈출 줄을 모른다.

SBS TV 'K팝스타' 시절보다 한층 날카로워진 양 대표의 시선과 '프로듀스101' 시리즈를 탄생시킨 한동철 PD 특유의 매서운 '가위질'은 아이돌 시장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수많은 청소년이 아이돌을 꿈꾸는 시대에 현실 감각을 심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믹스나인'은 충분히 제 몫을 하고 있다.

거기에 YG엔터테인먼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조차 양 대표에게 자신이 키운 연습생에 대한 평가를 맡긴 채 한껏 긴장하는 등 제 지는 연출이 프로그램에 활력을 더한다.

그러나 '믹스나인'은 여러 부분에서 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양 대표의 막말 논란이 대표적이다.

양 대표는 첫 회부터 짧은 지마 차림으로 출몰하는 연습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한 참가자에게 많은 나이를 지적하며 무례하게 발언한 경우도 있었다. 재밌다고 '갑질'까지 눈 감아 줄 시청자는 없다.

가뜩이나 대형기획사 수장이 '픽'(pick) 하는 구조에, 대놓고 '갑질'하는 방송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특기에도 수위 조절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률 역시 1%대에 머무는 것을 보면 최근에는 '악마의 편집'과 논란이 무조건 노이즈 마케팅 효과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믹스나인' 관계자는 앞으로의 관련 포인트에 대해 "본격 경연이 시작되면 연습생들의 실력과 매력에 더욱 주목할 수 있을 것이고, 긴장감도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습뉴스>



해외에서 '아리랑TV' 못보나

재정난에 프로그램 70% 이상 폐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해온 공영방송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이 재정난으로 현재 방송 중인 TV 프로그램의 70% 이상을 폐지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아리랑TV에 따르면, 아리랑TV의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505억원으로, 올해 예산 584억원보다 79억원(13.5%) 감소했다.

이는 아리랑TV를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 출연금이 바닥나 내년부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데다, 정부 방침으로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금마저 37억원(10.0%) 줄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TV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리랑TV는 이에 맞춰 내년부터 현재 방송 중인 38개 TV 프로그램 가운데 70%가 넘는 27개를 폐지하고 11개만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영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현재 9개의 뉴스 프로그램 중 3개만 남게 되고, 교양 프로그램은 24개 가운데 6개만 운영된다.

TV 프로그램들이 폐지되면 PD, 작가, 카메라, 리포터 등 비정규직 제작 인력도 감축해야 한다. 아리랑TV는 현재 총 310여 명의 프리랜서 및 과격직 인력 가운데 270명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V 프로그램이 줄어들면 국가별도 요구하는 본방송 비용과 다국어(6개 국어)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돼 해외 현지 케이블TV 방송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다.

아리랑TV는 현재 전 세계 105개국 1억3천8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방송하고 있다.

아리랑TV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여 년간 구축해온 해외 채널배급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국제방송으로서의 신뢰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방송의 품질 저하와 우수 인력 유출로 인한 국내외 경쟁력 저하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KBS, EBS, 국악방송과 함께 아리랑TV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금을 일괄 10% 삭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반회계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선 기금 사업을 국고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협의 과정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국가마다 앞다퉈 해외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아리랑TV 방송 파행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결여서 세계속으로(재)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마이 리틀 베이비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살림하는남자들 (재)	50 20세기 소년소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역사저널 그날 (재) 50 UHD 한식	50 마녀의 법정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00 SBS 12뉴스 50 지식홍조민 55 KBC 특집토론회 천년의 및 김치산업의 미래는?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문화사색 5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대 2 (재)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빛고를 행복이카데미	50 특선다큐 조애나 럼리의 일본기행	3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 (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05 사이닝스타 35 텔레몬스터 40 꾸러기 식사교실	00 뉴스브리핑
3	30 공간다큐, 사람(재) 50 팔도발상 스페셜(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1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공간다큐, 사람(재) 30 팔도발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 산 (재) 30 VJ 특공대 (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별별머느리 (재)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20 2017 프라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5 하하랜드 스페셜 55 별별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마녀의 법정	00 20세기 소년 소녀	00 사랑의 온도
11	10 월요기획	10 대한민국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빅 히스토리 마한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20 이웃집 찰스 (재)	35 영상앨범 산	10 빛날 스페셜 25 국제상 수상작 베스트 미러인간 시	30 나이타라인

EBS1

05:00 양호보 영어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15 꼬마기사 마이크	20:40 다큐 오늘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30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20:50 세계테마기행
<칼의 역사 1부 2600년의 역사, 용천보검>	10:30 한국기행(재)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내 인생 꼭 한번은 아이슬란드 - 바이킹이 숨겨둔 매혹의 땅>
06:0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06:00 엄마 까투리	21:3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소시지 김치찌개, 고구마조림>	16:15 두다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07:00 허준신이 과학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2(재)	<가을 발도둑을 잡아라 - 가을 인심을 찾아서>
07:3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7:15 로보카 폴리	21:50 EBS 다크프린
07:45 출동! 슈퍼월드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비밀의 땅, 파미르>세계의 지붕
08:00 똥똥똥 유치원 1~2	12:40 평등체벌(재)	17:45 호기심 소녀 도토	22:45 엄마를 찾자마
08:30 플라워링 하트	12:45 과학 다크 비욘드 (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1~4	23:35 가칠남녀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엄마를 찾자마(재)	19:00 로보 발명왕 러스티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9:00 몬카트	14:30 레이디 버그	19:30 EBS 뉴스	<둔기호테>
09:15 소피 루비	15:00 우주탐험가 젯	19:55 다문화 교부 열전	24:30 세계의 드라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0일(음 10월 3일 辛亥)

子	48년생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0년생 지혜가 앞서야 할 관세이다. 72년생 지금 당장은 힘들지도 모르지만 머지않아 새운지마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84년생의 지외는 전연 상관없는 상태가 된다. 행운의 숫자 : 73, 06	午	42년생 안배를 잘 해야겠다. 54년생 잡다함은 차치하고 핵심 현안에 집중하자. 66년생 발 빠르게 대응 조치하면 문제점은 해결될 것이다. 78년생 양보가 가장 빠른 방법이다. 90년생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추해진다. 행운의 숫자 : 27, 25
丑	49년생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연쇄적으로 술술 풀리게 되어 있다. 61년생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다. 73년생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니라. 85년생 주된 것을 등한시하고 종된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5, 77	未	43년생 한 숨을 쉴 일이 보인다. 55년생 애매하다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유리하다. 67년생 징후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79년생 머지않아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니라. 91년생 쉽게 눈에 띄는 걸림물부터 해결하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50, 91
寅	50년생 기대했던 바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게 된다. 62년생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빛을 보리라. 74년생 직접 상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86년생 길흉이 혼재하면서 변화무쌍함을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20	申	44년생 시간을 두고 깊이 고려한다면 여태까지 미처먹고 있었던 생각과 달라지리라. 56년생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따져 보는 것이 옳다. 68년생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 80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실천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70, 36
卯	51년생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63년생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만을 우선 적용해야겠다. 75년생 수용한다면 나름대로 충분한 역할을 하리라. 87년생 잠자코 있다 보면 반가운 이로부터 듣는 말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0, 55	酉	45년생 성사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57년생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낭비를 막을 수 있다. 69년생 대단하기는 하지만 자신과의 인연은 박할 것이니라. 81년생 탐탁스럽지 않더라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순탄하다. 행운의 숫자 : 31, 96
辰	52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백 번 못하다. 64년생 이리저리 잘 궁리해 본다면 훨씬 나은 방법을 찾게 된다. 76년생 굳이 여유분을 둘 필요까지는 없겠다. 88년생 발버둥 치면서 어렵사리 위기를 모면하는 국량이 나타나 있다. 행운의 숫자 : 65, 95	戌	46년생 변경하거나 추가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최상책이다. 58년생 원칙대로 추진하자. 70년생 별 것은 없으니 크게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다. 82년생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뜻 깊은 체험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7, 32
巳	53년생 현 상황이 전체적인 국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65년생 부담이 경감 되겠다. 77년생 건전하여 손해는 없을 것이니 적극적으로 가담하여도 무방하다. 89년생 다양성에 기초한 균형 감각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71, 49	亥	47년생 도모하기 힘든 일이니 포기하는 것이 낫다. 59년생 정성을 들이다 보면 보람을 느끼게 되리라. 71년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분명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83년생 부분이 아닌 전체의 입장에서 고려하라. 행운의 숫자 : 47, 1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